

현역 운영일에 도전한 민주당 내부경선 치열

■해남·완도·진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민주당을 탈당, 대안정치연대 소속인 운영일(61) 현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맞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윤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을 업고 3선에 도전하던 김영록 현 전남지사를 제치며 금배지를 달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사원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정치 경력은 '신인' 급이라는 점에서 지난 4년 간 지역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놓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에서 정당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설 후보와의 분선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민주당 후보로 오르내리는 입지자로는 중앙당 공모로 지역위원장이 된 윤재갑(64)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윤광국(60)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 이영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영일 윤광국 윤재갑 이영호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윤 위원장은 19대 총선 때는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본선에 도전했고 20대 때는 '중진 간 단일화' 요구에 따라 윤 의원과 단일화하면서 중도 사퇴했다.

윤광국 군법위 자문위원도 2014년 해남군수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신 이후에도 감정평가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윤 자문위원도 최근 민주당에 복당, 경선에 나서기로 한 만큼 민주당 경선 승리가 현역인 윤 의원의 '문중 후보간 대결'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완도 출신으로 20년째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호(59) 전 의원(17대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도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이 완도 출신으로 해남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역 민 선호도가 높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애초 민주당 경선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던 장환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해남·완도·진도 대신, 서울로 선거구를 옮겨 출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서삼석·이윤석 4번째 대결 '흥미진진'

■영암·무안·신안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내년 총선 관전 포인트가 많은 선거구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60) 현 의원과 이윤석(59) 전 의원이 리턴매치를 벌인다. 내년 총선에서 맞붙게 되면 4번째 리턴매치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서 의원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석패했다. 하지만, 지난해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선 서 의원이 민주당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을 누르며 국회에 첫 입성했다.

서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에 지역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특히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업 문제 해결과 지역현안에 대한 예산 확보 등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내 지지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치열한 민주당 경선을 뚫고 서 의원이 후보로 확정된다면 대안 신당



서삼석 배용태 백재욱 이윤석



임흥빈

후보로 나설 이전 의원과 본선에서 4번째 리턴매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출신 지역으로 나뉘는 후보간 대결도 관심사다. 19대 총선까지 무안

·신안을 선거구로 했다. 20대 총선부터 영암이 포함됐다. 이때문에 20대 총선에서는 영암 출신인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지역 내 지지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치열한 민주당 경선을 뚫고 서 의원이 후보로 확정된다면 대안 신당 민주당 경선 예정자로는 영암 출신 배

용태(64)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오르내린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시장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배한 뒤 정치적 움직임이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민주당에 복당, 영암 지역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탈당에 따른 경선 과정에서 감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안 출신으로는 백재욱(54)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임흥빈(58) 전 전남도의원이 거론된다. 백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내고 지난해 재선거에 도전한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내년 총선 관전포인트

이번 추석 연휴는 내년 총선의 출발선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구 입지자들에 대한 입소문과 정국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내년 총선에서의 선택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호남 민심은 내년 총선에서도 전체적인 판세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이자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오는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의 사활을 건 한 판 대결이 예상된다.

'국정안정론' '정권심판론' 격돌

◇안갯속 판세=21대 총선의 시계(視界)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입법부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국정안정론'의 프레임에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권은 경제와 안보 상황을 고리로 한 '정권 심판론'으로 민심에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국정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정면 격돌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여권 입장에서 20대 국회에서 정점 법안을 놓고 여소야대(與小野大)

'文정부 버팀목' 호남민심, 총선 전체 판세 좌우 핵심 변수

의 한계를 절감한 만큼 원내1당 유지를 넘어 과반 의석수 확보가 최대 과제다. 현재 제1야당의 미래 동력이 강하지 않아 여당의 무난한 총선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안보와 경제라는 쌍끌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한·일 갈등 국면 등 외교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진보의 편협성도 또 하나의 짐으로 꼽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한다. 이를 위해선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좀처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총선 승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과연 유승민, 안철수 등을 포함한 보수대통합을 이뤄내면서 총선 판을 이끌어갈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바른미래당, 민주당, 대안정치연대 등은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제3의 대안정당 위치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제3지대 신당을 고리로 하는 정계개편의 흐름이 이들의 정치적 생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두 자릿 수 의석 확보로 진보 정당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지각 변동 예고

◇선거제 개혁=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여부는 내년 총선 구도를 좌지우지할 대항 변수다.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이 결실을 본다면 현재의 소선거구 구도의 정치판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당장, 광주 서구갑과 서구를, 여수갑·을이 한 개의 선거구로 합쳐지는 것은 물론 전남지역 지역구의 연쇄 변동도 불가피하다. 고흥·보성·장흥·강진처럼 4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한 지역구로 묶이는 지역구가 속출할 수 있다. 석패율제 등 복잡한 비례대표 방식에 따라 군소정당이 정치적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데다 바른미래당의 이견 등 패스트 트랙에 있어 여야 4당의 공조가 계속될 것인지 미지수다. 여기에 지역구 축소에 대한 각 당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대로 강력해 선거제 개혁이 당초 합의안 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15석 정도

늘이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권발 정계개편 관심

◇정계개편=야권발(發) 정계개편론은 내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핵심 변수다. 옛국민의당에 뿌리를 둔 바른미래당과 대안정치연대, 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연대 또는 통합하는 제3지대론이 대표적인 시나리오다. 세 당 모두 변화를 통해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한국당이 우를력을 계속 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탈표를 흡수하는 한편 중도표를 결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연말께 바른미래당 내홍이 야권발 정계개편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보수대통합과 제3지대 신당론이 충돌하면서 바른미래당과 호남계가 갈라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3지대 신당이 차기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정치적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특히, 국민의당의 분열과

물락을 경험했던 민심이 다시 제3정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도 미지수다.

한반도 정세·민생 문제도 변수

◇대형 변수=한반도 정세도 총선 승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요인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더해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구도가 출몰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면 여당에 유리한 선거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반면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북한의 도발 국면에 계속된다면 민심 전반에 피로감이 쌓이면서 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민생 경제 문제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말·연초까지 일자리 등 민생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민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일 갈등도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어떻게 폴리스타에 따라 내년 총선의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호남 민심의 흐름도 결정적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으로서 호남이 무너진다면 내년 총선 참패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을 상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반적 평가다. 하지만 호남 민심의 정치적 쏠림 현상이 크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호남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여기에 호남에서의 경쟁 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또 총선 때마다 되풀이된 현역 의원 물갈이와 세대교체 등도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투자자 10억원

- 대상 - 급매물 · 경매물건
- 기간 - 2년 이내
- 수익 - 연 12% 이상
- 법적보장. 010-3605-5000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전입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전대) 융복합인사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 선 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 230-7700-2(010-5613-1808)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망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입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전대) 융복합인사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 선 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 230-7700-2(010-5613-1808)

시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9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019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무엇인가?

R&D 전주기에 걸쳐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협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 거주 시민(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우선)	산학협력의 이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법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기술활용, 프리젠테이션 실무,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전략적 의사결정기법 등	45시간	30명

모집기간 2019.09.02.(월) ~ 2019.09.20.(금)

교육기간 2019.09.23.(월) ~ 2019.11.13.(수)

교육시간 매주 월, 수 18:30 ~ 21:30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여동관 3104호실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메일 접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접수처 우)62396 광주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여동관 1층 평생교육원 * 메일 : always@kwu.ac.kr

문의 062) 950-3583~5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광주일보

창사 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9054	충장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침단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